

법률연맹 총본부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고용진입니다.

1차년도에 이어 올해 다시 법률연맹 총본부가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종 회의 출석률, 표결 참여, 대표발의법안의 본회의 통과, 국정감사·대정부질문 성과 등, 국회의원의 본분이라 볼 수 있는 의정활동 성실도의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해주셨습니다. 국민께 약속한 ‘밥값하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알려주신 셈이니 더욱 뜻 깊습니다.

지난 1년 간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국민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소비자가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상향하고 이행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집단민원의 체계적인 해결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요구, 가짜뉴스 대책 마련 요구, 디지털성범죄 대책 강화 촉구, 자동차산업 전속협력업체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등 다양한 민생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NGO모니터단이 높게 평가하여 2018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산업의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 생태계 조성방안 등 제조업혁신 전략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제조업 혁신 정책만큼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법률연맹 총본부에서 특히 높게 평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을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데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3.

국회의원 고 용 진

헌 정 대 상 수 상 소 감 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입니다.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1차년도에 이어 잇따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3차년도에는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가족위원회 세 위원회 활동을 모두 인정받은 것 같아 ‘헌정대상’이 더욱 뜻 깊게 느껴집니다.

저는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가 되고자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당시 발의했던 일명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과 <임상시험 안전 보장법> 등의 법안을 지난 연말 본회의에 통과시켜 먹거리 및 의약품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성폭력 동영상을 유통시켜온 웹하드-필터링 업체들의 유착 구조를 밝혀내 여성에게 사회적 살인과도 같았던 불법촬영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문제, 행정대집행 과정의 폭력 고발 등 사회적 약자가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고양 저유소 화재, 도심 유치원 붕괴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기반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부터 안전취약시설까지 점검하여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년은 질병, 범죄, 위험물 등 다양한 일상의 위협 요소들을 없애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그 노력을 알아주시고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제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도 계속 열심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제게 격려와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온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상임공동대표·총재님을 비롯한 議政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발굴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먼저, 민생먼저’ 의정활동 변치 않겠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에 귀 기울이며 뚝뚝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화성시(병) 지역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늘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7.22(火)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법질서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주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다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및 안보 공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을 밝혀 내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입법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까지 23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부산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발의를 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내 국회 도서관 부산분관 유치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7년연속 대학입시설명회 유치 및 찾아가는 영화관 유치를 통해 서부산이 동남권 경제, 교육,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뜻으로 삼고 국민 삶의 힘이 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3.

국회의원 김도읍

●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 김명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

친애하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임직원 여러분. 유서 깊고 명망 높은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이처럼 영예로운 수상의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헌정대상 시상식과 함께 출범하는 금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위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의 보배와도 같은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무척이나 기쁩니다. 헌정대상이라는 막중한 상 속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내려주시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큰 상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모든 국민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의 행복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이 되어 봉사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력이나마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정대상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의 간극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발전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정대상 수상의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 정무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특히, 2018년 수상 소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년에도 순위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00%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봉급 50%를 기부하겠다는 공약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소감문

2019.07.29.(수) 13:30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작년에 열린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회의원의 기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입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수지표를 개발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계도에 힘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내 경기가 심각한 부진을 거듭하고, 무리한 대북정책이 한미동맹 약화와 군 기강 해이를 야기한 한해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제1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흐름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제정법인 ‘디지털 자산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 하기위해 노력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실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재선의원의 경험과 소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허울뿐인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숨가쁜 일정과 급박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의원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범적으로 출석하고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항상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저를 지지하고 대표로 선출해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감 있는 견제를 통해 국회와 보수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신 상은 앞으로도 도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으로 새기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소감문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대 국회 등원 이후 매일 동두천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무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바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20대 국회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 깊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않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분들과 함께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우리 세대는 활력을 찾으며, 우리 자녀세대가 보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더욱 자세를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서민들을 비롯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 김 성 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승희 입니다.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제게 이 귀한 상을 주신 의미를 스스로 물어보는 동시에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식약처장이었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가장 무겁게 중점을 둔 책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의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을 통해 그 분들의 삶 속에 건강과 보건, 안전과 편의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의료인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세원법」, 그리고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국가의 도움으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상은 바로 그런 분들의 삶 속으로 제 자신을 더 뜨겁게 던지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제가 과거 약학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어떤 약도 처음부터 독약과 명약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미세한 쓰임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매 순간이 국민분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 낼 절박한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머리와 가슴에 깊게 새기고,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명약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존경하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표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입법·사법 감시와 인권·정의를 실천하는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법률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시민의식, 공정한 법제도, 충직한 정부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소비자운동은, 공익품격생활 실현, 비리피해구조 해체, 시민사회 각성, 부정부패 통제, 법률민주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본 연맹에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에 본 위원을 선정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대신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한 것에 대해 상까지 주셔서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좋은 평가의 밑바탕에는 바로 본 위원을 국회로 보내주신 거제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 보며 달려가는 김한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 **김 한 표**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민 경 욱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울러 지난 28년 간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및 법률운동에 매진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봉에 서서 훌륭히 이끌어주시는 김대인 총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에 더욱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엄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늘 초심(初心)을 잊지 않고 정도(正道)를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 **민경욱**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남도민과 김해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성원해주셔서 이런 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과연 그 다짐을 얼마나 지켰는지 되돌아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기본을 지키며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실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과 진정으로 함께 호흡할 때 비로소 한국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정직하고 바른 정치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된 것도 ‘민생국회’, ‘신뢰국회’로 거듭나서 국회가 명실 공히 국회다운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민 홍 철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를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우선,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으로 선정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국회가 국민들께 더욱 힘이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수상의원 선정을 위해 애써 오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또 대학에서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로서 젊은 시절 일궈온 학문을 연구하다 국회에서 교육개혁에 뜻을 함께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제 전공과 궤를 같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산적한 교육현안을 처리할 때면, 고단한 시간만큼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교육이 갖는 의미는 참 특별합니다. 과거에 축적된 산물들을 오늘의 학생이 배우며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정책은 '종결'됨이 없이 끊임없이 발전의 거둬야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도 수많은 교육 의제 속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한반도를 급속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치를 WHO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기 질 측정 시 학부모 참관제를 도입하고, 초기측정 수치를 비롯해 재측정·최종수치도 모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며 제도와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은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만 소득공제 되었다면 올해 7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률소비자연맹 <20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인데 받을 때마다 의미가 큼니다. 상패가 주는 무거움을 느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동안, 이전보다 더욱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열매 맺으라는 의미로 여기고 정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1년 전부터 지역위원장을 맡은 서초지역 활동을 통해서도 구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헌정대상을 준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함께 해주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 박경미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입니다.

2018년에 이어 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 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개량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 지난 해 과방위에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부처를 비롯한 소관 기관이 80여 곳이 넘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가 그렇겠지만 특히 과방위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 한가운데서 기존 산업의 붕괴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해야 하고, 과방위는 그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미디어빅뱅 시대에 방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디지털 경제의 시장 공정성·투명성 문제와 소비자보호·노동 대책, 개인정보 보호 문제,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 안전과 보호 문제, 인공지능시대의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입법 활동은 의정활동의 첫 번째 임무이며, 미래 시대에 대비한 법들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법'들은 대부분 쟁점에 묶여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 내내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해 쌓여가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날이 밝으면 발으로 나가는 농부처럼 한걸음씩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9.

국회의원 박선숙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든든히 지원해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농정의 미래를 살피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히 키우는 것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불제 개편, 농산물 유통구조개혁, 무허가축사 규제방안 모색, PLS제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모색 등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앞장서 달려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잘된 점은 더욱 독려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낍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권여당의 농해수위 간사로서 더욱 큰 책임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농어업을 살리는 일에 일로매진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을 지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법, 예산, 제도개선으로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 ‘이청득심’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른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을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헌정대상 수상소감 >

박 인 숙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 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법률연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대표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여부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우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신뢰와 격려를 전달하는 유서 깊은 상임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대 국회가 개원 3년차가 지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불러온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실업률과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자유한국당 제7정책조정위원장으로써 정쟁의 국회가 아닌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총 129건의 법안발의와 85회의 국회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의 법안발의와, 「바이오경제로펌」, 「생명잇기 토론회」, 「풍납토성 주민대책간담회」,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17회의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 곳곳의 문제를 확인하고 세상에 알릴수록 해결해야하는 과제 또한 늘어남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며, 그러한 다짐과 노력들이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작게나마 기여했다고 여겨져 헌정대상 수상의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이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파 갑 지역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연맹 헌정대상 소감문

2019년 07월 26일(금)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 파주를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과 20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시작한지도 3년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매일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표발의 법안 224건,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9.21%로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2017년도를 시작으로 3년 연속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올 해의 상은 그 어느 해보다 저에게는 특별하고, 뜻깊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파주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덕분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연맹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법률연맹은 국민의 눈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에 힘써왔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기도 한 ‘법률소비자운동’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 출석 및 활동, 입법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한 내용으로 그 의미와 무게감이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잘하라는 격려와 신뢰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의정활동의 초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혁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이뤄냈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개혁의 밑알이 되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의 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예산이 어떻게 하면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여전히 민생을 위한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듯,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민생·개혁 입법까지 산적한 현안들이 국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꾸준한 의정활동 모니터와 평가를 통해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남은 임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에 이어서 제3차년도 ‘헌정대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4월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와 강원도, 원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으로 보답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보보호 관련 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출석률 100%, 법안 대표발의 57건, 통과법안 11건,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들이 ‘헌정대상’이라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저의 노력만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국민, 원주시민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초선 국회의원으로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제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년 7월 29일

국회의원 송 기 헌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송 옥 주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햇볕 따가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시원한 소식을 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 28년 전통의 법률연맹총본부에서 선정한 「제20대 제3차년도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연맹총본부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국민의 ‘먹고 사는 설움’, ‘죽고 사는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乙의 눈물을 닦기 위해 당 내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충실히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밖에 무단방치 폐기물, 플라스틱 대란, 라돈 침대와 같은 여러 환경 의제를 다루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활동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현재 대표발의 법안 실적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7위,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 중심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입법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이 이달부터 시행돼 학교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국회의원이 되던 초심대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국민께서 아파하는 곳을 잘 어루만져 드렸는지, 답답한 부분은 잘 해소시켜 드렸는지,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바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법률연맹총본부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회의원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쓴소리를 아낌없이 보내주십시오.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 수상소감문_송희경 의원>

“ICT 전문성과 마더리더쉽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진실한 정치 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더욱 잘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생각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활동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가까운 미래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는 곳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간사로 몸담은 여성가족위원회 또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출산·육아문제 해결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매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시각각의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탁상입법이 아닌 의미있는 입법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ICT 신기술에 대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ICT 융합특별법 개정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많은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께 봉사한다는 초심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ICT 전문성과 마더리더쉽을 십분 발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 전달하고 ·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출신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에 이어 올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단체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앞으로도 최선의 다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싸움과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결실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논의하고 국정을 토론하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처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 다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자 합니다. 민생과 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다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민생 현안을 살피고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NGO모니터단과 법률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 국회의정종합모니터단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2019. 07. 25. 심재권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의원
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 국회의정종합모니터단에서 선정한‘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동구민 여러분들과 의정을 살피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국회 의정 종합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호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차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것이어서, 그 기쁨이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등원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상을 받아왔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률연맹에서 수여하는 헌정대상입니다.

법률연맹에서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현장 출석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 의원은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16만7천여명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주민이 부여해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를 높게 평가해주니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 의원은 3차년도에 법안표결 참여가 98.06%로, 전북 10분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의 넓이는 2,775.2km²에 이릅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1/3, 서울 면적(605.3km²)의 4.5배나 됩니다. 보통 여러 시군이 묶인 곳을 '공룡 선거구'라고 하는데, 제 지역구는 전국에서 7번째로 넓은 선거구라고 합니다. 지난해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점검해보니, 매월 7,500km씩 운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년 이면, 9만km인데, 지구 두바퀴(지구 둘레 4만192km) 반에 가까운 거리를 뒀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이 넓음에도, 열심히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더불어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발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대표·공동 발의한 법률 제·개정안은 850여건이 넘고, 무엇보다 대표 발의한 법안은 55건, 본의회 의결법안은 16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이 없다면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무한불성(無汗不成)입니다.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더 낮은 자세로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한한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헌정대상’ －

국회의원 오제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대 국회 3년차를 마치며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민생경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복지 향상은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임무라 생각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또한 이룰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노인빈곤 문제 해소, 폭증하는 의료비 대책,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개선방안, 기초노령연금 인상, 장애인 차별 금지, 복지인력 처우개선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가족지원 규정 신설, 장애인·노인을 위한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을 개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근거 마련,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로 정규직 전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활성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국민복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 각계에서 복지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온 밑바탕과 함께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가와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 · 사회단체 여러분께서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2017년에 이어 2019년도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2018년에 부족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반성하며 오롯이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했던 것이 오늘 수상의 계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해주신 것은 20대의 3차년도를 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중에 정무위원회의 간사로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심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며 상임위 일정과 본회의 일정의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본회의장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피부로 와 닿는 민생입법 역시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채권자와 부실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오너리스크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고 정무위원회의 여당간사로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민생입법의 추진을 통해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의 수상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간사와 인천계양갑의 대변자로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연맹 총본부에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분한 상을 수상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어느덧 2019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무더위 만큼이나 답답한 정국상황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3차년도 헌정대상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써,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더욱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극심한 경제난이 풀리고, 국가 안보에 걱정이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상은 앞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고, 더욱 귀 기울이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많은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2019.7.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매우 뜻 깊은 상인 ‘제20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상식을 주관하고,

지난 28년 간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온 법률연맹 총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 앞에서 다짐했던 국회의원 선서를 늘 가슴 깊이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 인재근입니다.

뜻 깊은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상은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라는 국민의 격려이자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자로서 맡은 역할에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국회다운 국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잡은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서민의 따뜻한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정책 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와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늘 서민의 삶을 챙기는 따뜻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도봉구민과 국민들께 이 수상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국회의원 인재근

《2019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장정숙입니다.

지난해 ‘국리민복상’에 이어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후반기 국회 들어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애쓴 것을 높이 사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여 비합리적인 정책 관행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재정 누수,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등을 비롯해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과악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요구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보건·복지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실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 이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 사항을 살펴보는 등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1,700여 건이 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생겨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처의 개선 대책 마련 외에도 직접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매진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에 집중해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7.29.

국회의원 장 정 숙

2019 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각종 회의 출석, 법안 실적, 국정감사 실적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수집하고 평가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연맹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의 수상은 제20대 국회에서 3년 연달아 수상이라는 점에서 큰 영광인 반면,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받는 상이라서 아쉬움도 크고,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여야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 산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본연의 역할은 방기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 여러 정치적, 정책적인 의제가 서로 뒤엉키며 국회를 열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상호 야당이었던 시절과 여당이었던 시절을 역지사지하고 당리당략보다는 국민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국회를 운영하는 정치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의 헌정대상은 정치문화를 혁신하는 국회, 최소한 밥값은 하는 국회의원이 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아프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법률안 심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올해 상반기에 하지 못한 밥값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마감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복귀한 만큼, 법사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정감사도 놓친 의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및 법원개혁 등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일조하고, 국민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정대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이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심도 있게 계량화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발표하는 뜻 깊은 상입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달리라는 채찍의 의미로 알고 겸손한 자세로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농어민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어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이 많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락의 정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협치와 상생으로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이번 헌정대상수상을 발판삼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삶을 위하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알의 밑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영광을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단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엊그제 20대 국회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넘게 지나 그동안의 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헌정대상 수상의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게 다가옵니다.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냥 기뻐했는데, 오늘 또 다시 3년 연속 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큰 기쁨과 함께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이번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수고했던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느라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_ 조승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전국의 각 분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의 평가 기간인 지난 1년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와 교육 분야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어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국회가 공전과 파행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해 교육 현안과 안건들을 논의하는 등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제시했던 정책 대안들이 국민의 삶에 편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며 유권자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고 많으셨던 NGO모니터단 여러분과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더 나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헌정대상에 걸맞은 국회의원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7. 29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 드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최연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연혜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통한 자유·정의·평화·법치민주사회 구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2차년도 헌정대상’에 이어 2년 연속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몰락, 안보위기, 정치실종이라는 대내외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언론장악 문제를 지적하고 편향된 언론보도와 불공정한 포털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탈원전 저지운동’을 펼치며 최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범국민서명운동이 50만을 돌파했고, 지금도 온라인과 전국 거점 지역에서 서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정치상황이지만 국회의원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정치로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우리 국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 항상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부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당리당락과 정쟁을 넘어 민생과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 뿐인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날낱이 파헤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국회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임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소비자연맹이 앞으로도 국회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국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추 경 호

반갑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출신 국회의원 황주홍입니다.

우선 헌정대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기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단연 입법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가장 많은 법안 처리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헌절을 맞아 국회 내 사무의 전자 방식 처리에 관한 5개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자원 절약을 위해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자”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국민께 부응하는 방법은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